

독서의 기초

①어휘력

: 기본 중의 기본. 반복되기에 한 번에 끝내기

"종시 잡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종시: 마침내 끝내

②세부정보

: 누구든 쉽게 놓치는 정보. 기계적으로 표시하고 넘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만 ▷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인 (~)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

아니다 없다 부족하다 X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 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크다 작다 X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③연결어

: 연결어를 통해서는 글의 흐름/ 글의 중요도가 변화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종류	설명	예시	중요도 변화
순접	앞의 내용을 이어 받아 연결	그리고 그리하여	
대등 병렬	앞뒤 내용을 같은 자격으로 나열& 이어주기	또한 혹은 및	
첨가 보충	앞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보충	더구나 게다가	
확언 요약	앞의 내용을 간추려 짧게 요약	요컨대 결국	요컨대 결국
인과	앞뒤 문장을 원인과 결과로 이어주기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왜냐하면
예시	앞에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	예컨대 이를 테면	예컨대 이를 테면
전환	앞의 내용과 다른 화제로 바꾸어 이어주기	그런데 그렇다면 다음 으로 한편	(그렇다면)
역접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어주기	그러나 하지만 비해 달 리 반면	하지만 그러나

3가지 개념을 키우기 위해 이후 기출을 분석하기

1. 만연

- 널리 퍼진 것
- 주로 부정적인 것과 어울리며 많다 등으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음

EX) 청탁 등의 부조리가 만연한 취업 시장은~

2. 말초적

- 2가지 모두 기억. '사소하고 부차적인 것' & '관능적인 것'이 그것
- 전자는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며
- 후자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것으로 바꿔 쓸 수 있음

EX1) 이번 투표 결과는 말초적 현상일 뿐이다

EX2) 그 유투버는 너무 말초적 자극만 추구해

3. 맹아

- 원래는 식물의 새로 트는 싹을 의미 그러나 실제 지문에서는 특정한 대상의 시초를 말함
- 쉽게 싹 & 시초로 바꿔 쓸 수 있음

EX) 자본주의 맹아론이란 조선에도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던 내부적 환경이 존재~

4. 매개체

- 연결의 역할을 하는 중간적 존재를 의미함
- 연결자 & 중간자 등으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음

EX) 인터넷은 전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5. 묘사

- 그대로 그린다는 것을 의미함 유사한 묘사와 구분
- 따라함, 베끼기 등으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음

EX) 정부는 모사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6. 묘사

-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서술 & 그려냄. 유사한 묘사와 구분

- 자세한 서술, 자세한 그려냄 등으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음

EX) 소설에서 나타난 심리 묘사는

7. 목가적

- 시골 생활처럼 소박하고 평화롭고 서정적인 것을 의미함.
- 쉽게 목동이 양을 치는 상황을 떠올리면 됨
- 일정 부분 겹치는 전원적 향토적도 같이 정리
- 전원적은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이나 농촌의 정취가 나는 것을 말하며 시골 생활의 자그마한 것에 애정을 쏟는 경우 전원적이라 할 수 있음. 자연 친화적 시조에서 자주 등장
- 향토적은 한국 시골과 고향의 정취가 담긴 것을 의미함

EX) 사찰에서의 생활을 담은 이 수필은 목가적 분위기와 함께~

8. 무고

- 없는 사실을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 거짓으로 꾸며내기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음

EX) A 사회 구조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무고로 몰리는 걸 걱정한다

9. 묵과

- 묵묵히 지나가는 것을 뜻함 또 잘못임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함
-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음 등으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음

EX) 포퓰리즘적 정책을 묵과하는 것은~

10. 무색

- 무색은 정의보다는 예시를 집중력 있게 정리해야 함. 무색 자체는 색깔이 없다는 뜻
- 그러나 이보다는 '무색하다'와 연결되는 겸연쩍고 부끄럽다는 뜻과 본래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여 존재가 뚜렷하지 못하고 보잘것없다는 뜻을 기억
- 전자는 부끄럽다로 후자는 보잘것없다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음

EX1) 무색한 웃음을 지었다

EX2) 화가도 무색할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린다

11. 묵수

- 인격이나 생각 등을 굳게 지는 것을 뜻함
- 굳게 지키고 유지하는 것으로 쉽게 바뀌 쓸 수 있음

12. 문외한

- 어떤 일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뜻함
- 잘 알지 못하는&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쉽게 바뀌 쓸 수 있음

EX) 제가 비트코인에는 문외한이라

13. 미증유

- 아직까지 한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을 의미
- 처음의, 전대미문의 등으로 쉽게 바뀌 쓸 수 있음

14. 모티프

- 이야기 등에 관련한 문학적 개념과 일상적 의미를 약간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모티프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화소, 즉 이야기의 구성원을 뜻하는 말. 간단하게 이야기에 서 드러나는 특징적 구조, 중심 사상, 주제를 의미함
- 문학적으로 보자면 모티프는 모티브와의 비교가 필요한데 모티프가 중심 사상, 구조를 의미하는 반면 모티브는 행동의 동기나 글의 출발점을 의미함
-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모티브나 모티프나 쉽게 구분되거나 하지는 않음
- 이러한 특징을 반영해 모티프를 작품의 핵심 사상, 핵심 구조/ 출발점으로 나누어 기억

EX1) 단군설화의 모티프는

EX2) 이번 행사의 모티브가 된 단군설화에 관한 다양한 해석은

15. 메다

- 여러 의미를 기억& 메다와의 구분
- 구멍 등이 막히는 것. 메우다의 준말로 구멍 등을 막는 것, 어깨 등에 걸치는 것, 책임 등을 맞는 것 모두 기억

EX) 목이 메어

16. 매다

- 묶다는 의미를 가지며 잡초 등을 뽑는 "김을 매다"라는 표현도 기억

17. 바라다

- 원하는 것을 의미. 명사형은 바람이라는 것을 기억

EX) 그의 바람은 전쟁없는~

18. 바라다

- 빛깔이 열어지거나 윤기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함. 또 배웅하다는 의미도 지님
- 빛깔이 열어지다를 중심으로 기억

EX) 빛깔이 바랜 낡은 옷

19. 배다

- 여러 의미가 존재& 배다와의 구분
- 촉촉하다는 의미. 액체 등이 스미어 젖는 것. 오래 남아 있는 것 특정한 행동이 몸에 배다처럼 버릇이 되어 익숙해지는 것. 아이를 임신하는 의미. 모두 기억

EX) 그물코가 배다/ 기름이 배다/ 고된 노동도 몸에 배어/ 아이를 뱀 지 5개월이나

20. 베다

- 고개를 받친다는 의미. 물건을 끊어서 자르다는 의미. 파면시키다는 의미 모두 기억

21. 부치다

- 여러 의미가 존재& 붙이다와의 구분
- 힘이 모자라다는 의미. 편지나 물건 등을 보낸다는 의미.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에 넘기에 맡긴다는 유사한 표현으로 회부한다는 의미. 불문에 부치다처럼 어떤 취급을 받는다는 의미. 고전 등에서 기러기에 부쳐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다처럼 심정을 위탁한다는 의미
- 또 하숙을 부치다. 남의 눈을 부치다. 빈대떡을 부치다. 부채를 부치다처럼 다양한 의미 모두 기억
- 힘이 모자라다와 편지나 물건 등을 보낸다는 중심으로 기억!

22. 붙이다

- 붙이다 역시 많은 의미를 정리해야 함. 많은 경우 붙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은 형태
- 풀로 붙인다는 의미. 가구 등을 벽에 붙여 놓는 의미. 말을 거는 의미. 주석을 다는 의미. 비서를 붙이다처럼 바로 옆에서 돌보게 한다는 의미. 흥정을 붙이다처럼 겨로는 일 등이 어울려 시작되게 한다는 의미. 담뱃불을 붙이다처럼 불이 옮겨 타게 한다는 의미. 조건을 붙이다처럼 조건 등을 따르게 한다는 의미. 따귀를 붙이다처럼 뺨 등을 세게 때리는 의미가 존재
- 붙게 하다는 의미를 중심으로 기억. 두 대상을 같이 붙어있게 하는 것
- 특히 풀로 붙이다. 비서를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흥미를 붙이다 같은 예시들을 기억

23. 반영

- 기본적으로는 빛이 반사하여 비치는 것을 의미 그러나 이보다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으로 나타남 혹은 나타냄
- '보여줌, 나타냄'으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음

EX) 현실의 반영

24. 반추

- 새김질을 의미 그러나 그보다 음미하고 생각하는 의미로 더 자주 등장
- 차분하고 진중하게 생각함으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음

25. 방종

-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 주로 책임 없는 자유를 말할 때 방종을 이야기
- 제멋대로 행동. 마구잡이로 행동 등으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음

26. 배제

- 물리쳐서 없앤다는 의미로 유사한 배척과 배타와의 비교가 필요
- 배척은 외국 문화를 배척하다처럼 물리쳐 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배타는 남을 배척하는 것으로 배척과 배타모두 거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배제는 거부보다는 없애는 것으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음

EX) 감정의 배제

27. 백안시

- 냉대하여 흘겨본다는 의미

- 냉대한다에 방점을 두어 기억하면 되고 반대의미로는 따뜻하고 친밀한 마음으로 본다는 청안시가 있음

28. 병치

-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 곳에 나란히 두거나 설치한다는 의미 주로 문학 선지에서 자주 등장
- 나란히 배치하는 것으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음

EX)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병치함으로써

29. 봉착

- 어떤 상황이나 저지에 부딪친다는 의미 부정적 상황에 자주 등장
- 당면하다 등으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음

EX) 딜레마에 봉착하다

30. 버리다

- 날이 무딘 연장들 날카롭게 만든다는 의미 그러나 이보다 마음을 긴장시키거나 가다듬다는 의미로 더 자주 등장
- 가다듬다 등으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음

31. 부침

- 물위에 떠오름과 물 속에 잠긴다는 의미 그러나 이보다 시세의 변천 상태의 상승과 하강을 즉 변화를 의미.
- 상황의 상승과 하강, 변화 등으로 쉽게 바꿔 쓸 수 있음

EX) 부침이 많은 인생을 살았구나

32. 불초

- 못나고 어리석다는 의미 불초한 자식 등으로 사용

33. 비약적

- 단계나 순서를 차례대로 밟지 않고 건너 뛰었다는 의미
- 쉽게 건너 뛴으로 바꿀 수 있으며 논리 등과 결합했을 때는 오류 등의 부정적 의미

EX) 비약적 발전

〈적용〉- 연결어/ 맥락적 독해

이후의 독해- 5 스키마를 활용한 틀 독해/ 8 세부정보/ 이미지화/ 배경/ (왜 갑자기)

1. LEET

음악이 재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작품 이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재현적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재현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작품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재현적이라 일컬어지는 음악 작품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감상자는 작품이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음악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상자는 〈바다〉가 바다의 재현으로서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이 곡을 이루는 음의 조합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바다〉를 음악적으로 이해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도 제시될 수 있다. 작품의 제목이나 표제가 무시된 채 순수한 음악적 측면만이 고려된다면 작품의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표제적 제목과 주제를 알지 못하는 감상자는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에서 왜 '프랑스 국가'가 갑작스럽게 출현하는지,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의 말미에 왜 '단두대로의 행진'이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실로 이들 작품에서 그러한 요소들의 출현을 설명해 줄 순수하게 음악적인 근거란 없으며, 그것은 오직 음악이 재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의해서만 해명될 수 있다.

재현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또 다른 문제/ 재현된 대상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지 않음/ 바다의 재현으로 인식되지 않아도 조합과 구조 파악/ 이것 자체로 음악적으로 이해한 것

↔ 반대의 입장/ 제목이나 표제가 이해에 필수적인 경우/ 순수한 음악= 재현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 오직 음악이 재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의해서만

2. 2014학년도 LEET

쾌락주의는 고통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금욕주의자가 기꺼이 감내하는 고통조차도 종교적·도덕적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속적 금욕 주의자들은 재화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며,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내세의 성취를 위해 현세의 쾌락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성취이든 내세적 성취이든 간에 모두 광인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쾌락주의/ 고통은 도구일 뿐/ 고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금욕주의자도 광의 쾌락

3. 2012 MEET/DEET

디지털 사진의 데이터는 가로, 세로의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화소의 밝기 값으로 표현된다. 각 화소의 밝기 값을 2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로 표현하는 방식을 공간 영역 방식이라고 한다. 공간 영역 방식

으로 표현된 디지털 사진의 데이터에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영역에 있는 화소들의 밝기 값을 적당히 변경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상표의 이미지 데이터를 특정 영역의 화소 값에 더하거나 곱하여 밝기 값에 포함하면 된다. 공간 영역에서는 화소 값에 직접 식별자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워터마크 삽입과 추출에 필요한 연산량이 비교적 적고 식별자의 삽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삽입된 워터마크는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 내기와 같은 간단한 영상 처리 또는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는 데이터 압축에 의해서 쉽게 훼손되는 단점이 있다.

공간 영역 방식/ 2차원의 데이터/ 눈에 안띄는 곳에 워터마크 삽입/ 연산량 적음/ 쉽게 훼손가능

Cf) 알아두자 배경지식

2차원 데이터- 1차원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것. 쉽게 행과 열. 1차원 데이터는 개별 원소들의 집합 '1차원 데이터 [1.2.3.4.5], 2차원 데이터([1.2.3.4.5], [2.3.4.5.6],[3.5.7.9.10])'. 결국 원소 15개

1. 2011학년도 MEET

18세기 영국의 사상가 버크는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 대중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일반 국민이란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그는 계약에 의해 선출된 능력 있는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지도자로서 국가를 운영케 하는 방식의 대의제를 생각해 냈다. 재산이 풍부하여 교육을 충분히 받아 사리에 밝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대의제란 지도자가 성숙한 판단과 계몽된 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여기서 대의제의 본질은 국민을 '대표'하기보다 국민을 '대신'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즉 버크는 대중이 그들 자신을 위한 유·불리의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독립적 판단을 통해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버크에 따르면 국민은 지도자와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했다기보다는 '신탁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개별 국민들의 요구와 입장을 성실하게 경청해야 할 의무 대신에, 국민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대신할 의무가 있다. 그는 만약 지도자가 국민의 의견을 좇아 자신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 대중 회의/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함/ 계약에 의한 능력있는 대표자가 대신해서/ 효율적/ 대신한다/ 독립적 판단/ 신탁계약(vs신의 계약)/ 개별의 요구에 경청X/ 스스로 판단 대신

CF) 대리인보다 수탁인에 가까움

2. 2011학년도 MEET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국민 개개인의 절대적 권리보다는 탁월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국민의 자질을 강조하였다. 즉 아무리 국민이 민주적이며 자발적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서 선출한다고 해도,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고 일반 국민이 이에 따르는 한에서는, 권력 관계

지도자를 선출한다고 해도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고 일반 국민이 이에 따르는 한에서는, 권력 관계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적절한 자질이 중요하다고 러셀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일단 선택된 지도자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나, 반대로 소수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태도 모두를 지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도자를 선택한 이후에도 모든 것을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을 통해 지도자의 결정에 대한 수용과 비판의 지속적인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절대적 권리보다는 탁월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국민 자질/ 현실적 상황 고려해서 국민의 자질이 필수적/ 무조건 수용 거부 모두 지양/ 다수결을 통한 지도자 결정 수용과 비판 지속

3. 2011 학년도 MEET

언론의 객관성과 관련해 우리는 검증 가능한 사실과 주관적 판단이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의견을 구분하면 기사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실제 언론의 보도에서는 특정 경향성을 나타내어 객관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 우선 사실의 선택부터가 경향성을 지니는 경우가 있다. 복잡한 사실들로 구성된 사건 중 일부의 취재원과 인용문을 선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체 중 일부 사실만 강조하는 것이다. 윤색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도 적지 않다. 이는 특정한 관점에 근거한 평가적 함축이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건이나 대상 등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의 함축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전제된 가치의 문제도 있다. 언론이 기사를 작성할 때 중요하다고 간주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당연한 전제로 가정하는 것으로, 어느 한 가지 가치만을 기본 전제로 삼고 다른 가치는 무시한 채 사실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객관은 외부 제 3자 주관의 나의 것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도 객관성을 상실하는 경우/ 특정 경향성/ 사실의 선택부터/ 윤색적/ 특정한 관점에 기반한 평가적 함축/ 전제된 가치/ 모두 경향성을 드러낸다

1. 2013학년도 LEET

최적통화지역 개념은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논쟁 속에서 발전하였다. 변동환율론자들은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있는 국가에서 대내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동환율 제도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어떤 조건에서 고정환율 제도가 대내외 균형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고려했다.

초기 이론들은 최적통화지역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준을 찾으려 하였다. 먼델은 노동의 이동성을 제시했다.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대내외 균형 유지를 위한 임금 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고 결국 환율 변동의 필요성도 작을 것이다. 잉그램은 금융시장 통합을 제시하였다.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으면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경상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자본 이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조정의 압력이 줄어들게 된다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자본 이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조정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지역 내 환율 변동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케넌은 재정 통합에 주목하였다. 초국가적 재정 시스템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일부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재정 지출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환율 변동의 필요성이 감소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고정환율 제도 아래에서도 대내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경직성 즉 잘 바뀌지 않는 것/ 대내외 균형을 목표/ 변동 환율 제도 필요

↔ 어떤 조건 하에서 고정 환율 제도로도 균형을 달성할 것인가/노동 이동/ 금융시장 통합/재정 통합

CF) 경직성은 물가와 노동 공급의 특징. 쉽게 바뀌지 않는 것. 특히 노동의 경직성의 경우에는 총공급의 개념과 함께 그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CF) 경제 정책의 큰 틀: 재정 정책과(총수요 대응) 통화 정책(이자율과 물가상승률 대응) 최근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한 것은 통화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 최근에는 이에 더해 서 현금 부조(거들어 도와줌+ 경조사에 돈 등으로 주는 것/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기뻐 들뜸/ 슬과 부딪막) 중심의 재정정책이 최근에 진행- 결과는 물과 폭등

2. 2013학년도 LEET

이후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위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한다.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이 충족되며 단일 통화를 형성할 수 있다. 단일 통화 사용의 편익은 화폐의 유용성이 증대된다는 데 있다. 거래 비용이 줄고, 환율 변동의 위험이 없어지며, 가격 비교가 쉬워진다는 점에서 단일 화폐의 사용은 시장 통합에 따른 교환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반면에 통화정책 독립성의 상실이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주요 비용으로 간주된다. 단일 통화의 유지를 위해 대내 균형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으로, 전체 통화지역 중 일부 지역들 사이에 서로 다른 효과를 일으키는 비대칭적 충격이 클수록 증가한다. 가령 한 국가에는 실업이 발생하고 다른 국가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한 국가는 확대 통화정책을, 다른 국가는 긴축 통화정책을 원하게 되는데, 양 국가가 단일 화폐를 사용한다면 서로 다른 통화정책의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노동 이동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비대칭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독립적 통화 정책의 필요성은 감소한다. 반대로 두 국가에 유사한 충격이 발생한다면 서로 다른 통화정책을 택할 필요가 줄어든다. 이 경우에는 독립적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비용이 감소한다.

비용 편익 분석에 따른 단일 통화의 형성/ 유용성 ↔ 대내 균형의 포기를 해야하는 경우도.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으로 클수록, 다른 효과가 클수록, 다만 노동 이동은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의 문제를 완화할 수가 있다

3. 2013학년도 LEET

최근 유로 지역의 경제 위기는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로 지역 내 국가 간 불균형을 분

최근 유로 지역의 경제 위기는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로 지역 내 국가 간 불균형을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유로 지역 내 노동 이동이 일국 내의 이동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로 지역은 최적통화지역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더욱이 유로화 등장 이후 유로 지역 내에서 해외 투자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유럽의 핵심국에서 유럽의 주변국으로 엄청난 자본 이동이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주변 국에는 경기 과열이 발생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본 이동이 중단되자 주변국은 더 이상 호황을 지탱하지 못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과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하게 되었다. 환율 조정 수단을 상실한 유로 지역은 핵심국과 주변국 사이의 불균형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된 것이다.

유럽 지역내 불균형/ 노동이동이 자유롭지 않았음/ 최적 통화지역이 아니었음/ 경기과열 이후의 적자와 실업이라는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함

4. 2013학년도 LEET

발의된 의안은 본회의 의장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때 의장은 의안 회부를 거부할 수 있는 문지기 권한을 지닌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은 수정안 제출을 포함한 심사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과반 표결로 의결되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장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안은 규칙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규칙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수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수정불가 규칙 또는 무제한 수정을 허용하는 수정허용 규칙을 부여한다. 단, 규칙이 부여되지 않으면 의안은 사장된다. 본회의에 의안이 상정되면 수정불가 규칙이 부여된 경우는 가부 표결만 하며, 수정허용 규칙이 부여된 경우는 수정안이 제출되면 심사 활동을 거쳐 일반적으로 최종 수정안부터 제출된 순서의 역순으로 가부 표결을 하게 된다. 표결은 대개 과반 표결로 한다

회부: 안건에 부침

상임위원회 회부- 수정안 제출의 심사과정을 거쳐 표결된다- 규칙위원회- 또 여기서도 수정 심사 활동을 거쳐- 최종안부터 심사하게 된다

수정안은 상임위 수정안 본회의 수정안을 나눠서 볼 수 있다.

5. 2013학년도 LEET

입법 과정은 의원들의 정치적 대표 체계의 다중성 때문에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소선거구제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지역구민의 대표이고,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소속 정당 지지자의 대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입법 과정의 각 단계에서 교차 압력으로 작용하여 입법 과정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정치적 대표 체계의 다중성/ 국민 전체의 대표 지역구민의 대표 정당지지자의 대표/ 교차압력

6.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 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경국대전/ 체계적으로 집대성/ 양법미의/ 개정X/ 조종성헌/ 왕도/ 국왕도 바꾸기 어려움

1. 2012학년도 LEET

일제 강점기의 사법권에 대한 통념에 따르면, 사법권은 일반 시민 생활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즉 민사·형사 재판만을 사법권의 범위로 본 것이다. 삼권 분립도 입법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부가, 행정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부가 관할하고, 사법부는 여기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의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삼권 분립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어와 달라 해방 후 한국의 법원 측 인사들의 주장은 모든 법의 적용이 사법권에 해당한다는 미국식 사고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헌법도 법의 이상 위헌 법률 심사도 당연히 법의 적용에 해당하므로 사법부 관할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법원 측 인사들은 의회 다수파의 전횡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법 심사제라고 주장했다. 법의 적용에 속달된 판사들이 법리적 관점에서 위헌 법률 심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 측이 사법 심사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사법 심사제가 사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법권은 일반 시민의 삶/ 민형사/ 헌법에 위배 여부도 의회 자율 ↔ 모든 법의 적용이 사법권/ 위헌 법률도 사법부 관할/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사법부가 보호가능한 사법 심사제/ 객관적

2. 2012학년도 LEET

사법 심사제와는 다른 위헌 법률 심사 제도는 헌법학자 유진오의 구상에서 출발하였다. 유진오는 법이 위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법단계설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회가 위헌인 법률을 제정해도 헌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 심사제가 태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가 보기에 위헌 법률 심사는 일반 법령의 적용과는 달리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대법관 몇 명이 국민의 대표 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법 심사제는 위험한 것이었다. 또한 미국식 삼권 분립 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이 상호 견제하는 제도이므로, 국가 수립에 필요한 수많은 과제를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당시의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유진오는 비상설 기구로서 헌법위원회를 별도로 창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구상하였다. 그리고 그 위원 구성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대법원장, 국회 양원 의장, 그리고 대통령 이 참의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3인으로 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그 위원 구성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대법원장, 국회 양원 의장, 그리고 대통령이 참의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3인으로 하도록 하였다.

사법 심사제↔위헌법을 심사제도/법단체설에 기반/ 국회의 법도 헌법에 통제 아해에 있어야/ 선출되지 않은 집단이 선출된 집단에 대한 정치적 행위의 사법 심사제는 위협/삼권 분립 제도도 현실과 맞지 않음/ 헌법 위원회의 창설

사법 심사제는 삼권분립의 성격이 강하다

헌법 위원회는 빠른 국가 권력의 개입과 상충되지 않음

3. 2012학년도 LEET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은 사회심리학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대별된다. 먼저 초기 사회심리학 이론은 유권자 대부분이 일관된 이념 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투표 선택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는 현상은 그 정당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곧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혈연, 지연 등에 따른 사회 집단에 대해 지니게 되는 심리적 일체감처럼 유권자들도 특정 정당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태도를 지니는데,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정당의 이념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 하게 작용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따져보다 정당 일체감에 따라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합리적 선택 이론은 유권자를 정당이 제시한 이념이 자신의 사회적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그 효용을 계산하는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공간 이론은 이러한 합리적 선택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근접 이론과 방향 이론으로 나뉜다.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 설명/ 사회심리학 ↔ 합리적 선택이론

사회심리학/ 심리적 일체감/ 동일시/ 이해관계 유리X↔ 합리적 선택/ 효용계산/ 합리적/ 공간이론/ 근접이론과 방향이론

근접과 방향은 공간이론의 하위 개념으로 합리적 선택이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보여주는 것

4. 2012학년도 LEET

초기의 근접 이론과 방향 이론은 유권자의 선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이념 공간을 일차원 공간인 선으로 표시하고, 보수적 유권자 X, 진보 정당 A, 보수 정당 B의 이념적 위치를 그 선에 표시한다고 가정하자. 근접 이론은 X와 A, B 간의 이념 거리를 각각 'IX - A|'와 'IX - B|'로 계산한 다음, 만약 X와 A의 이념 거리가 X와 B의 경우보다 더 가깝다면 X는 A에 더 큰 효용을 느끼고 투표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유권자 분포의 중간 지점인 중위 유권자의 위치가 양당의 선거 경쟁에서 득표 최대화 지점임을 의미한다

근접이론/ 가까우면 더 큰 효용을 느끼고 투표/ 중위 유권자의 위치가 양당의 득표 최대화 지점

5. 2012학년도 LEET

방향 이론은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이념 원점을 상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당의 이념이 유권자의 이념과 같은 방향이되 이념 원점에서 더 먼 쪽에 위치할수록 그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효용이 증가하며, 반대로 정당의 이념이 유권자의 이념과 다른 방향일 경우에는 효용이 감소한다고 본다. 가령 이념 원점이 5라고 한다면, X의 A와 B에 대한 효용은 각각 '-15 - X×15 - A'와 '15 - X×15 - B'로 계산되는데, 이때 X는 이념 거리로는 비록 A가 가깝다 할지라도 B에 투표하게 된다. 따라서 방향 이론에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효용은 그 정당이 유권자와 같은 이념 방향의 극단에 있을 때 최대화된다.

방향 이론/ 같은 방향 원점에서 멀수록 효용 증가/ 같은 이념 방향의 극단에서 효용 최대화

CF) 산수는 구체적인 값을 넣어서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념 원점 5 보수 6 보수정당 15 보수정당 2 7 진보정당 4

진보는 -1/ 보수1측 극단적 우파는 10/ 보수2는 2

6. 2012학년도 MEET

근접 이론은 미국의 정당들이 실제 중위 유권자의 지점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방향 이론은 유럽 국가들에서 이념적 극단에 있는 정당이 실제로 수권한 경우가 드물다는 비판에 각각 직면 했다. 이에 근접 이론은 정당이 정당 일체감을 지닌 유권자(정당 일체자)들로부터 멀어질 경우 지지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중위로부터 다소 벗어난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고 이론적 틀을 보완했다. 또 방향 이론은 유권자들이 심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이념 범위의 관용 경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당이 관용 경계 밖에 위치하면 오히려 유권자의 효용이 감소한다는 점을 이론에 반영했다

근접과 방향의 비판/ 중위유권자 지점X .이념적 극단이 수권한 경우 드물다

근접 이론 정당 일체감을 지닌 유권자들을 고려하는 것

방향이론은 심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관용 경계를 서술

CF) 이념적 극단은 수권하지 못한다는 거짓. 드물다는 적다는 표현으로 어떤 이념적 극단 정당은 수권하지 못한다고 읽어야 한다.

7. 2012학년도 LEET

상위선은 여러 선들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선으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목적이나 욕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지니며 여러 도덕적 가치 평가들의 근거가 된다. 상위선은 우리 자신의 욕구나 성향,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주어지며 그 욕구나 선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상위선은 도덕적 판단 들의 근거가 되는 도덕적 원천의 것이다.

상위선/ 최고의 가치/ 도덕적 가치 평가의 기준/ 욕구 성향 선택에 의한 형성X/독립적/선택기준

8. 2012학년도 LEET

강한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상위선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자리 잡은 것으로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효가 상위선인 사회도 있고, 자유가 상위선인 사회도 있다. 각 사회의 상위선은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판단이나 직관, 반응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 상위선이 무엇인지 규명하면 각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판단이나 반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도덕 철학의 주요 과제들 중의 하나는 도덕적 판단들의 배후에 있는 가치, 즉 상위선을 탐구하여 밝히는 것이다

상위선/ 역사적 형성/ 사회와 문화에 따른 차이/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으로 도덕적 판단이나 직관, 반응의 배경/ 도덕 철학의 주요 과제

9. 2012학년도 LEET

근대의 도덕 철학이 추구하거나 전제로 삼고 있는 가치나 권리는 보편적임 것아 아니며 근대라는 특정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특수한 것이다. 즉 이러한 근대의 도덕 철학 자체도 그 시대의 특정한 상위선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의무론은 자유나 보편주의와 같은 도덕적 이상 즉 상위선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절차주의적 도덕 이론도 이성적 주체의 자율성 같은 상위선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근대의 도덕 철학이 옹호하는 도덕 규칙도 근대적 가치나 상위선을 배경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도덕 규칙이 보편성을 지닌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근대의 도덕철학도 근대라는 특정한 시대적 조건/ 자유와 보편주의/ 이성적 주체의 자율성/ 보편성이 아니다

의무론의 보편주의는 내가 정한 도덕적 준칙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뒤의 보편성은 시대를 초월해 어떤 시대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 가능

1. 2011학년도 LEET

20세기 초반 미국의 법률가들은 법철학이 실무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학문이라 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법철학자들은 대개 권리나 의무의 본질에 대한 막연한 이론을 늘어놓기만 할 뿐. 그것이 구체적인 법률 문제의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호펠드의 이론은 당대의 통념을 깨뜨린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는 다의적인 법적 개념의 사용으로 인해 법률가들이 잘못된 논증을 하게 되고 급기야 법적 판단을 그르치기까지 한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무엇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권리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20세기 초반/ 법철학은 실무에 쓸모X/ 막연한 이론/ 구체적인 법률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X

↔ 호펠드의 이론/다의적인 법적 개념의 사용이 잘못된 논증& 법적 판단/ 권리 개념의 명확화(해결책)

2. 2011학년도 LEET

그는 모든 권리 문장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률가들이 '사람에 대한 권리'와 구별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른바 '물건에 대한 권리'도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므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그는 법률가들이 권리라는 단어를 서로 다른 네 가지 지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권리와 그 상대방의 지위를 나타내는 네 쌍의 근본 개념을 확정할 수 있었다. 결국 모든 법적인 권리 분쟁은 이들 개념을 이용하여 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상대방은 그 행위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둘째, 자유권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며, 상대방에게는 그 행위를 요구할 청구권이 없다. 셋째, 형성권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러한 권리자의 처분이 있으면 곧 지위 변동을 겪게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상대방이 현재 접하고 있는 지위, 곧 피형성적 지위인 것이다. 넷째, 면제권은 상대방의 처분에 따라 자신의 지위 변동을 겪지 않을 권리이며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처분을 할 만한 형성권이 없다

호프만의 이론/ 권리를 상대방의 관점에서 재구성/ 권리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지위. 권리와 권리의 상대방의 지위

청구권/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의 요구, 상대는 해야 한다

자유권/ 특정한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형성권/ 상대방의 권리를 바꿀 수 있다. 상대방은 피형성적 지위

면제권/ 상대방의 처분에 따라 지위를 겪지 않을 수 있다.

CF) 이러한 부분은 '2*2메트릭스나 그래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상황과 없는 상황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3. 2012학년도 LEET

호펠드는 이러한 근본 개념들 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와 관계적 특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권리 문장이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인 문법을 완성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청구권이 상대방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데 비해, 형성권은 상대방과의 법률 관계를 통제하는 결과 그의 행위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게 되는 차이가 있다. 또한 청구권이 상대방을 향한 적극적인 주장이라면 자유권은 그러한 주장으로부터의 해방이며, 형성권이 상대방과의 법률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처분이라면 면제권은 그러한 처분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고 두 사람 사이의 단일한 권리 관계 내에서 볼 때 만일 누군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방은 동시에 자유권을 가질 수 없고, 만일 누군가 형성권을 가지

수 없고. 만일 누군가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방은 동시에 면제권을 가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유권자의 상대방은 동시에 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면제권자의 상대방 또한 동시에 형성권을 가질 수 없다.

청구권/직접적 통제/적극/ 자유권과 양립 불가능 ↔ 형성권/ 법률관계 통제. 그의 행위도 그 결과로 통제.(간접)/ 적극/ 면제권과 양립 불가능

4. 2012학년도 LEET

클러스터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연계 기업, 특정 영역의 연관 기관 등이 유사성이나 보완성 등으로 서로 연결된 집단으로 정의된다.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관된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즉 기업이나 산업의 전&후방 부가 가치 네트워크의 특성을 먼저 고찰하고, 다음으로 전문 기능, 기술, 정보 등을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 기관을 파악한 후, 마지막으로 정부 혹은 규제 기관의 역할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사례인, 전통적인 포도 재배 지역에 형성된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 클러스터의 경우, 포도 재배는 이 지역의 농업 클러스터와, 와인 양조는 식품업 및 관광업 클러스터와 강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와인학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지역 대학, 지방 정부, 지역 상&하원의 특별 위원회와도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클러스터/ 연계기업 연관기관이 유사성이나 보완성으로 서로 연결된 집단/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어떤 네트워크/ 와인클러스터에서 포도 재배는 농업클러스터와 와인 양조는 식품업 및 관광업 클러스터와/ 지역 대학 지방정부 상하원의 특별 위원회

CF) 전방산업/후방산업: 고객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기. 전방은 공급망에서 고객과 가까운 것. 후방산업은 소재나 부품처럼 기존 기업보다 고객에게서 먼 것

1. 2011학년도 LEET

우선 노동자 정당의 세력화는 기존의 의회주의적 대의제 개념에 균열을 가져왔다. 투표함 앞에서 모두가 한 표씩의 권리를 행사하는 평등한 시민의 이익만이 아닌, 특정한 집단들의 특수 이익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었다. 개인뿐 아니라 직업 집단이나 조합 등까지도 대표의 단위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평등한 개인들을 대표한 입법부의 절대적 지위에 변화가 생겼다. 그 대신 행정부가 이익들을 대표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면서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1890년에 정부 내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06년에는 이것이 노동부로 개편되었다

노동자 정당의 세력화/ ↔ 의회주의적 대의제 개념/ 평등한 시민의 이익만X/ 특정 집단 특수 집단의 이익의 설정과 이해/ 입법부의 절대적 지위에 변화/ 행정부가 이익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역할과 권한/ 노동위원회/ 노동부

CF) 대리인보다 수탁인에 가까움

2. 2011학년도 LEET

행정부는 특화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장점으로 지닌 다양한 자문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대
의적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해 갔다. 나아가 대의제를 다양한 이익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수
용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립하면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대표로서 기능하
였다. 이를 통해 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자라는 국가의 상이 정립되었다. 제3공화국은 78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 절정은 국가 경제 위원회이다. 국가 경제 위원회는 37개
직업집단으로 구분된 대표 체계를 형성하여 국가 경제 활동의 충실한 대표가 되었다. 국가는 전문적
인 기술과 장치들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특수 이익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의 조정과 소통을 통해 일반
이익을 형성하며, 나아가 일반 이익의 형성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행정부/ 자문위원회의 설치/ 대의적 기구으로서의 정당성/ 다양한 이익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수
용하는 대의제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 적극적인 대화자/ 특수한 이익의 파악
/ 조정과 소통/ 일반 이익의 형성/ 정당성의 확보

3. 2011학년도 LEET

노동자 정당의 세력화에는 사회적 연대의 형성과 강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제3공화국 초기에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국한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직업 단체 결성의 자유 보장, 교육의 확대, 극빈자의 보호 등에 한정하면서 사회 문제에는 적
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도 생활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시혜적 성격의 부조에 머물렀
다. 하지만 노동자 정당이 세력화하면서 국가는 사회 문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
으로 사회 정의를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연대주의를 제시했다.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앞서 모
두가 자유로운 사회 계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연대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는 복지 국가를 개념화한 것이기도 했다.

부조: 남을 도움. 건강이 좋지 않음. 매우 들뜸. 슬과 부뚜막

노동자 정당의 세력화/ 사회적 연대의 형성과 강화

3공화국 초기/ 공정한 중재자/ 적극적 개입X/ 시혜적 성격/↔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인 연대주
의/ 자유로운 사회 계약 '능력'/ 경제적 자유주의X/ 마르크스주의X/ 복지국가

4. 2011학년도 LEET

당시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물이 교회 권력 혹은 국왕이나 영주 등의 세속 권력에 의해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다. 세속 재판에 회부된 동물 피고는 주로 사람을 죽인 가축들이었다. 돼지가 가장 흔
했고, 소, 말, 개도 법정에서 섰다. 교회 재판에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친 작은 동물이나 곤충들이 피고가
되었다. 재판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소송 절차를 엄수하였다. 유죄가 증명되면 세속 법원은 관습법에
따라 사형을, 교회 법원은 교회법에 근거하여 저주와 파문을 선고했다

동물이 재판/ 교회 OR 세속/세속은 주로 살인 교회는 주로 해를 끼친/ 사람에게 적용되는 소송

5. 2011학년도 LEET

동물 재판 관행은 13세기부터 본격화되어 16세기에 정점을 이뤘다. 이 시기 유럽에서는 고대 로마 법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속과 교회에서 법학이 발전하는 등, 근대법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다. 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혹은 이 물음의 답을 동물과의 충돌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생활 조건과 동물을 의인화하는 민중 문화에서 찾기도 하겠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성.속의 엘리트들이 이 관행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물 재판은 13세기 이후 공권력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새로운 재판 제도하에서 이루어졌다. 중세 초기의 재판 제도는 사실상 개인들의 자력 구제를 재판의 형식에 집어 넣은 수준에 불과했다. 민사와 형사 재판의 구별도 모호했고, 공적의 형벌 제도도 없었다. 이에 반해 새로운 재판 제도에서는 합리적인 소송 규칙에 따라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권력이 동물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성속: 성스러운 것과 속세스러운 것

동물 재판 관행/ 근대법을 위한 기반이 다져짐/ 성속의 엘리트가 실무적 뒷받침/ 공권력이 역할과 권한이 강화/ 새로운 재판 제도/ 합리적인 소송규칙/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판결

6. 2011학년도 LEET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수많은 인공위성에는 지표를 세밀히 관측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위성 영상 센서는 근래에는 지구 환경의 이해를 위한 과학적 목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격탐사학은 이러한 센서 시스템을 통하여 비접촉 방식으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격탐사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물체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복사에너지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우주 공간을 빛의 속도로 진행한 후 지구 대기를 통과하여 지표면에서 반사된 다음 다시 대기를 거쳐 위성 센서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물체에 입사하는 에너지와 반사되는 에너지의 비를 반사율이라 하는데, 원격탐사는 파장에 따른 반사율인 분광 반사율을 이용하여 물체의 성질을 알아낸다

A에 대한 B A에 대한 B의 비율 A대비 B B대 A B의 A에 대한 B= B/A A와 B의 비 주로 A:B이며 A 대 A/B가 더 적절하다 그러나 국립국어ONJS 답변에 빗침볼 때 이 자체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영상센서/ 과학적 목적/ 원격탐사학은 이를 이용/ 비접촉 방식으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 태양- 전자기파- 지구 대기 통과- 지표면 반사- 다시 대기- 위성 센서/ 입사되는 에너지와 반사되는 에너지의 비인 반사율/ 물체의 성질